

반포3주구 재건축 '6개건설사' 참여

수주전 화두는 '공정경쟁'

서울시, 불공정경쟁시 집중 점검 전문가 파견... 제안서 위반 검토 코로나19 우려 비대면 홍보 요청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수주전'에 돌입했다. 반포 주공아파트 전경 /정연우 기자

국내 대형건설사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을 따내기 위한 '수주전'에 돌입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이미 1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삼성물산,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이상 보증금 납부순) 등 6개 시공사가 참석했다. 조합은 앞선 HDC현대산업개발 측의 소송과 관련 해선 향후 일정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대비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반포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이 정비사업은 서초구 1109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동 2091가구를 짓는 것으로, 입찰보증금은 총 800억원이다. 200억원은 현금, 나머지 600억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면 된다. 입찰마감은 오는 4월 10일이며, 시공사 합동홍보 설명회는 5월 1일, 최종선정은 5월 16일이다. 조합 측은 이날 현장설명회를 찾은 각 건설사 관계자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앞으로는 비대면 온라인 위주의 홍보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서울시도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포3주구를 선제적 공공지원 1호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과열 경쟁이 감지될 때에는 입찰제안서 내용의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시 모니터링에서 불공정·과열 경쟁이 감지될 경우 시·구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지원반을 바로 투입, 입찰제안서 내용의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부정당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조합운영 실태점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파견해 건설사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하고, 조합과 서초구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와 단속반 활동을 지원한다.

앞서 반포3주구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됐지만 공사비 등에서 조합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과 500억원에 달하는 입

찰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반포3주구는 지난 2018년 5월,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에 HDC현대산업개발을 선정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입찰제안서와 최종 수의계약서 일부 내용이 다르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시공사 지위를 박탈시켰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시공권 해지 시 조합원 직접 참석 비용과 입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반포3주구 조합 역시 '시공사 계약해지 총회에는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과거 판결을 사례를 활용해 HDC현대산업개발을 반박했다.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 측의 소송제기는 시공사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조합 측에서도 대비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현대중, 초대형 LPG선 수주 KSS해운 총 910억 건조계약

내년 8월 선주사에 인도 예정
올 40척이상 LPG선 발주 예상

현대중공업그룹이 초대형 액화석유가스(LPG)선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KSS해운과 8만4000입방미터(㎥)급 초대형 LPG선 1척, 총 910억원 규모의 건조계약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부터 KSS해운에서 같은 규모의 LPG선 5척을 수주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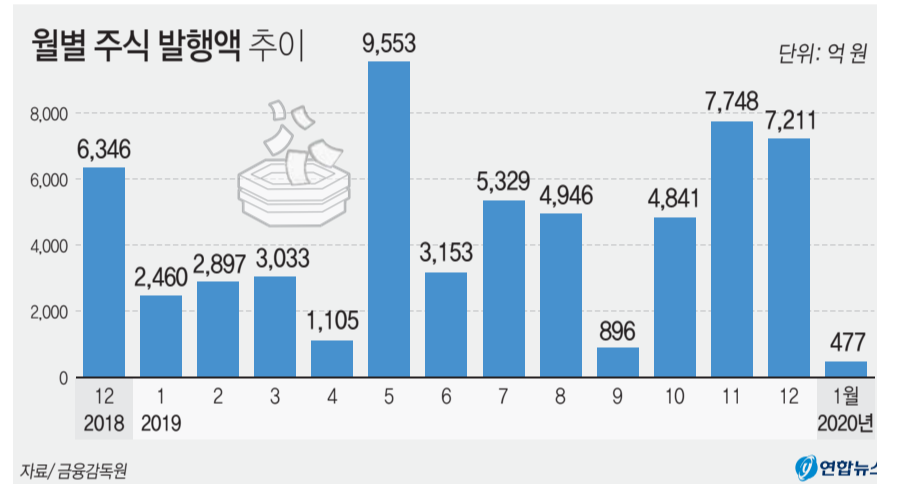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230m, 너비 32.25m, 높이 23.75m로, 올해 9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시작해 2021년 8월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조선해운 전문 기관인 클락스 리서

치에 따르면 전 세계 LPG 해상 수송량은 2019년 1억3000t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1억1700만t으로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40척 이상의 LPG선이 발주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LPG선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에만 LPG 추진선 7척을 포함해 초대형 LPG선 12척, 중형 LPG선 7척 등 총 19척의 LPG선(전 세계 LPG선 발주량 총 31척)을 수주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세계적인 선급인 영국 로이드 선급으로부터 LPG 연료공급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LPG 추진 선박 관련 기술에서도 앞서 있다는 평가다.

/양성운 기자 ysw@



1월 일반회사채 늘고 주식은 급감

금감원 지난달 주식발행규모 477억 기업공개 210억... 전월비 91.3% ↓

지난달 유상증자 등 기업들의 주식 발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중 주식 발행규모는 477억원으로 전월 7211억원 대비 93.4%나 급감했다.

기업공개(IPO)가 210억원 규모로 전월 대비 91.3% 줄었다. 코스닥에서 만스팩 두곳이 상장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 유상증자 규모는 전월 대비 94.4% 감소한 267억원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한 곳씩 자금조달에 나섰다. 회사채 발행규모는 11조1579억원으로 전월 대비 27.7% 증가했다.

특히 일반회사채의 발행이 급증했다. 3조2110억원 규모로 전월 대비 6배 이상 늘었다. 운영 및 채무상환 목적의 중·장기채가 주로 발행됐다.

금융지주채가 2500억원, 은행채가 6300억원 규모로 발행돼 전월 대비 각각 55.4%, 28.0% 줄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은 4379억원 규모로 발행돼 전월 대비 68.8% 감소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회사채 미상환 잔액은 525조3131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3735억원(0.3%) 증가했다. 일반회사채는 발행액이 상환액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순발행으로 전환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대형쇼핑몰 후광효과에 아파트 공급 러시

복합쇼핑몰 들어서면 인구·집값 ↑ 스타필드 인근 하남유니온 2배 올라

이케아, 스타필드, 롯데몰 등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고덕과 인천 송도, 충남 계룡, 경남 창원 등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 유동인구를 크게 늘린다. 교통, 배후수요, 미래가치 등 입지 여건을 따져 검증된 곳에만 대형 사업지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쇼핑몰 인근 집값이 오르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형 쇼핑몰 인근에 위치한 단지의 '후광효과'를 살펴보면 스타필드가 입점한 하남의 경우 스타필드 하남 인근에 위치한 '하남유니온시티 에일린의뜰' 84.99㎡ 12층은 분양가 대비 2배 뚝 지난 1월 8억원에 거래됐다.

권강수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25일 "대형 복합몰이 들어서는 부지는 중심상업지구로 주택 수요까지 견인해 집값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며 "쇼핑몰 종사자, 협력업체 등으로 인한 수요도 기대할 수 있어 가격 상승은 물론 환금성도 좋다"고 말했다.



이런 단지들로 충남 계룡에서는 대우건설이 오는 3월 '계룡 푸르지오 더 퍼스트' 59㎡~84㎡, 883가구를 분양한다. 단지 바로 옆에는 충청권 최초로 이케아가 들어서는 부지가 예정돼 있다. 대실지구 중심상업지구(예정)가도 보거리에 위치해 있고, 계룡시청, 계룡 문화예술의전당, 흙플러스 등도 가깝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선다. KTX 계룡역이 가깝고, 계룡대로와 계백로가 단지외 인접해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현대건설이 오는 3월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를 분양한다. 송도국제도시 1공구 B2블록에서 아파트 84㎡~175㎡ 1205

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59㎡ 320실 등 152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인근에는 스타필드가 입점 예정이고 코스트코 송도점, 롯데마트 송도점, 흙플러스 송도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롯데몰 송도(예정), 스타필드 송도(예정) 등이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이케아가 입점 예정이다. 올 상반기 가장 관심 끄는 물량으로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오는 4월 '둔촌주공 재건축' (가칭) 1만 2032가구 중 84㎡ 이하 478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금리인하 여파... 대부업 대출 7000억 ↓

대형사, 신규대출 중단 사업철수 수순

법정금리 인하 여파로 대부업계가 역대급 위기에 빠진 가운데 대부시장 규모가 빠르게 줄어 들고 있다. 한국 대부업계를 주도해온 대형사들이 신규 대출을 연이어 중단하거나 사업 철수 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2018년 2월)되면서 대부업계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대

부업체들은 물론 대출잔액과 대부업이 용자도 줄었다.

실제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업체수는 2016년 말 8654개에서 2018년 말 8310개,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8294개로 집계됐다. 대출규모도 2018년 상반기 이후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18년 상반기 17조4000억원이던 대출액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16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김유진 기자 ujn6326@